

어린이 책꽂이



▲모자 쓴 고양이 따로=제3회 소천아동문학상 신인상 수상자 오은영 씨의 장편 동화다. 태권도와 고양이를 좋아하고, 원만한 남자 아이들이 짝꿍매개하는 말괄량이 고양이, 새아빠를 맞아 가족에를 이루어 가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솔직 산뜻하며 사랑스럽다. <교학사·8천500원>



▲어린이 동문선=동문선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중반까지 학자와 선비들의 글 가운데 뛰어난 것만 가려 엮은 문집으로 조선 성종 때 서거 정과 양성지가 왕편을 받아 편찬했다. 원작 4천300여편 글 중 어린이에게 유용한 26편을 엄선해 쉽게 풀이 썼다. <처음주니어·9천500원>



▲흑염소는 까매서 똥도 까말다=구래 출신 원로 동시인 문삼석씨의 유년 동시집이다. '흑염소' 등 동식물의 생태나 사물의 특징을 잘 포착해 어린이 마음으로 단순 명료하게 그린 동시 40편이 실렸다. '엄마랑 읽는 아가 동시' 이후 4년만에 펴내는 동시집이다. <세이아이·8천원>



▲한국사 편지 1-원시사회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200만 부가 팔린 어린이 역사책 '한국사 편지'가 출판사를 바꿔 새 단장을 하고 다시 나왔다. 대중 역사책을 써온 박은봉씨가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우리 역사를 담아낸 책으로 초등학생 딸 세운이와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집필했다고 한다. <책과함께 어린이·1만1천원>



▲꼬끼리 똥으로 종이 만드는 나라는?=소가 매트리스에 자는 나라가 있다고? 북극곰 감옥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의 독특한 생활이야기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기호 차이, 생활 문화의 차이, 자연 지리의 다양성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왜 지푸 날 괴롭혀?=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빌리.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든 빌리가 가족들에게 충고를 구하면서 스스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미국 작가 주디스 캐슬리가 쓰고 그림 동화책이다. <근북작은북·8천500원>



▲숫자가 사라졌어요=생활속 물건들 가운데 숫자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전화기, 달력, 텔레비전 리모컨...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물건들에서 숫자가 사라진다면? 숫자 없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상황을 익살스럽게 그려낸 그림이 흥미를 더한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아멜리아 에어하트=1932년 혼자서 대서양을 날아서 횡단한 최초의 여성 파일럿 아멜리아 에어하트. 책은 온갖 편견과 장애가 많은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낸 위대한 조종사의 열정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다산기획·8천원>

환경·도시문화 등 테마별 접근 '세상 엿보기'

조양희 '런던 하늘 맑음' 외 4권

최근 단순한 볼거리를 소개하는 여행기를 벗어나 다양한 테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여행자들이 눈길을 끈다.

베스트셀러 '도시락 편지'의 저자인 조양희가 펴낸 '런던 하늘 맑음'은 여행기이자, 환경에세이다.

조씨가 16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 런던건축협회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딸 박진호와 함께 쓴 이 책은 런던 스모그로 대표되는 환경오염과 파괴로 몸살을 앓았던 도시 런던이 책 제목처럼 어떻게 '하늘 맑음'이 됐는지 찬찬히 들여다본 책이다.

두 사람은 런던 최초의 친환경 주택 단지인 베드제드, 마굿간 건물에 들어선 캠프 마켓, 독극물에 오염돼 버려졌던 그리니치 반도에 들어선 밀레니엄 등 친환경 건축물을 직접 방문,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150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빨간 우체통, 종이박스 쓰레기통, 물도 재활용하는 런던시청의 화장실 등 생활 속에서 발견한 친환경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슬람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자신이 방문한 도시의 명소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조양희씨가 쓴 '영국 하늘 맑음'에 실린 영국 최초의 환경 주택단지 베드제드의 모습.

까지 담은 '마음이 머무는 도시 그 매혹의 이야기'와 '시간이 머무는 도시 그 깊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펴냈다.

두 책 모두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인문학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글들이 인상적이다.

'마음이 머무는 도시'에는 무굴 제국 전성시대의 문화유산들로 가득한 파키스탄의 라호르, 포르투갈의 포르투, 터키의 안탈리아, 알제리의 알제 등 문화도시 16곳을 소개했다.

'시간이 머무는 도시'에서는 포르투갈의 리스

본과 스페인의 그라나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등의 깊은 모습을 소개한다. <바다출판사·각 권 1만2천원>

또 설흔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영국으로 떠났던 문삼현이 쓴 '투키리 정원의 여행자'는 '우프'(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의국 생태농장에서 일하며 속식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를 통해 영국 농장을 돌아다니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서머턴, 글래스턴베리, 브리스틀의 생태 농장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느린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 곳곳에 실린 우퍼 관련 팁은 유용한 정보다. <시공사·1만3천원>

그밖에 소설가 유재현이 쓴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는 '민주화'라는 테마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네 팔 등을 돌아본 책이다. 여행기를 넘어서 치열한 '현장 보고서'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는 책으로 그의 여정 속에는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난민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모습이 생생히 실려 있다.

'아시아의 기억을 걷다', '느린 희망', '무화과 나무 뿌리 앞에서' 등에 이은 '유재현 온 더 로드' 시리즈의 네번째 책이다. <그린비·1만5천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상에서 길어낸 '삶의 깨달음'

'겨울밤 0시 5분'

황동규 지음



지난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황동규 시인(70)이 열네 번째 시집 '겨울밤 0시 5분'을 펴냈다. '꽃의 교묘' 이후 3년 만에 발표한 신작 시집에는 시인이 일상에서 길어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63편의 시가 실렸다.

표제작 '겨울밤 0시 5분'을 보면 시인의 눈에는 마을버스 종점에서 막자로 귀가하는 딸이나 남편을 기다리는 듯한 여자가 들어온다. 여자 곁에 '아는 사이인 듯 서서 두 손을 비비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인은 하늘 위 별의 말을 듣다 대꾸할 뻔한다.

"별 하나가 스르르 환해지며 묻는다/그대들은 뭘 기다리지? 안 울지 모르는 사람?/어둠이 없는 세상?먼지 가라앉은 세상?/어둠 속에서 먼지 몸 얼렸다 녹이면서 빛 내뿜는/혜성의 삶도 살맛일 텐데./누가 헛기침을 했든가,/옆에 누가 없었다면 또박 또박 힘주어 말할 뻔했다."('겨울밤 0시 5분' 중)

또 시인은 놀랍도록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삶의 맛' 내지 '살맛'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음미하고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밖에 '눈의 물', '섬진강의 추억', '삶에 한번 띄게 빠져' 등 노 시인의 연륜이 묻어나는 다양한 시를 만날 수 있다. <현대문학·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남 출신 派獨 간호사의 자서전

'누구나 가슴 속엔 ...'

이영숙 지음



스무 살 나이에 파독 간호사로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의대에 진학해 의사로서 자신의 꿈을 성취한 해남 출신 이영숙(66)씨의 삶을 담은 '누구나 가슴 속엔 꿈이 있다'가 출간됐다.

파독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예외적인 학생, 뇌종양을 앓던 독일인 남편과 결혼한 여인, 독일에서 개인병원을 연 한국인 의사, 남편을 앓아간 병마가 자신을 찾아왔지만 곳곳에서 이견 낸 사람- 이영숙이라는 한 사람을 정의하는 많은 수식어처럼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낯선 나라에서 의사로서 자기 삶을 일구어낸 이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는 한국인의 자력을 읽을 수 있다.

책은 또 한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라를 위해 낯선 땅으로 향했던 파독간호사들의 숨겨진 이야기, 한국과 독일에 걸친 근현대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을 재조명한다.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불굴의 한국인 이영숙씨의 끊임 없는 노력과 삶에 대한 열정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스코프·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야구는 투수 놀음' 공금증 해결

'야구란 무엇인가'

레너드 코페트 지음



'바람의 아들' 이종범(KIA타이거즈)은 투수가 던진 공을 얼굴에 맞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이후 몸쪽 공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다.

흔히 투수들은 타자를 향해 위협구를 던진다.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타격을 방패하는 가장 큰 벽이기 때문이다.

60여년간 야구 전문가를 지낸 레너드 코페트(1925~2003년)의 야구문서 '야구란 무엇인가'가 다시 나왔다. 미국의 무수한 야구 서적 중에서도 '명저 15선'의 하나로 꼽히며, '야구의 성서'로도 불리는 책이다.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전문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다. 지난 1999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뒤 10년만에 수정판이 나왔다.

책에는 타격, 피칭, 수비, 사인, 감독, 심판, 언론, 구단, 명예의 전당, 규칙 변천 등 야구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야구를 왜 '투수놀음'이라고 평하는지 등 야구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 줄 재미난 이야기가 풍성하다. <황금가지·1만8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Onidolnara' furniture store. The ad features a banner with the text '대호온돌나라 & 가사갤러리' and '광주신세계백화점 입점기념 고객초대전'.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images of different furniture pieces, including beds, sofas, and dining tables.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기간: 2009년 3월 8일부터 ~ 3월 8일까지 (단, 3월 7일 휴업)' and '문의: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 with phone numbers '(062)3360-1902' and '011-279-8870'.